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썈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 / F. 286-9206)  
<http://www.jthink.kr>

보도시점: 2020년 12월 15일(화)부터

· 담당부서 :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  
(063-280-7141)

· 문 의 : 산업경제연구부 나정호 부연구위원  
(063-280-7178)

##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경제시대,

##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특구 유치로 신성장동력 창출

전북연구원, 급증하는 한중 해상전자상거래 화물유치를 위한 군산항  
배후 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 전략 제시

[사진 및 영상자료 : 없음]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 ‘군산항에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특구를 조성하여 비대면 경제시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자’(통권 236호)를 발간하여,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비대면 경제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 전라북도의 유일한 수출입관문인 군산항이 한중 구간의 해상전자상거래 화물유치에 전략적 입지 강점이 있는 점을 활용하여, 민간통관업체 유치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 현재 인천과 평택에서 운영 중인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 처리물동량이 급증하고 있고, 주요 물류기업이 수도권 지역 대형물류기지를 조성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군산항을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특구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당위성과 시의성을 갖추고 있다.
- 국제전자상거래 화물의 중요성, 긴급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항공물류를 활용하고 있으나, 중국 산동성 지역과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은

익일수송이 가능한 16개의 한중 해상카페리(cargo-ferry)루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카페리수송구간은 항공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신속성에서 경쟁이 가능하다.

- 연구진은 군산항 배후에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을 유치할 경우 비수도권 택배물류거점(대전, 옥천)과 거리상 인접성, 통관 신속성의 강점을 부각하여 일반적으로 7~8일 소요되는 한중 전자상거래 화물을 3~4일 내에 받아볼 수 있는 물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군산항 배후에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조성하여 연간 5,000TEU의 화물을 처리할 경우 304억 원 가량의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유일한 전라북도 지역 선사인 석도국제훼리(주)의 코로나19 위기 타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책임을 맡은 나정호 박사(산업경제연구부)는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민간특송업체의 자가통관장 운영규칙을 적용하여 급증하는 해상전자상거래 물동량 처리를 위한 물류거점으로 전라북도와 군산항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와 군산항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 코로나19로 신규투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민간특송업체를 유치하여,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유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군산시’, ‘관세청(군산세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 ‘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 등 관계기관이 주도한 민간업체, 연구기관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 해상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이 조성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 소상공인 해외판로개척,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식품수출 지원, 전라북도 특산물 중국 수출연계 풀필먼트 비즈니스 모델개발, 전라북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장 등 군산항,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뒷받침하는 신규전략을 제안하였다.